
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	
		배포일자 2021년 10월 12일(화) 총 3매				
담당부서	교통정책과	담당자	• 교통안전팀장 이진선 ☎ 440-3861 • 담당자 김대남 ☎ 440-3864			
사진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	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
인천시, 안전에 색(色)을 입히다.

- 교차로 등 ‘노면 색깔 유도선’ 설치를 통한 시인성 강화로 교통사고 예방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교차로 등 29개소에 대한 노면 색깔 유도선(color lane)을 오는 10월말까지 설치한다고 밝혔다

노면 색깔 유도선은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. 교차로, 인터체인지, 분기점 등의 노면에 유도선을 설치함으로써 도로 이용자가 자신의 경로를 혼동 없이 명확히 인식 및 주행할 수 있도록 노면에 색을 입혀 차로의 방향을 안내하는 유도선을 말한다.

노면 색깔 유도선은 신광사거리 등 47개소의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다. 경찰서 교통과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지역을 대상으로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과 협의를 통해 서인천IC진출로 등 올해 대상지 15개소를 선정하고, 군·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지 10

개소, 교통운영개선사업 대상지 4개소, 총 29개소 교차로 등에 설치할 계획이다.

2019년도에 색깔 유도선을 설치한 부평시장역 오거리의 경우 설치전과 비교해 약 30%, 송림오거리는 약 50%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 됐다.

조성표 시 교통건설국장은 “교통사고의 약32%가 교차로에서 발생하는데, 노면에 시인성 높은 색깔 유도선을 설치함으로써 차로의 명확한 안내로 사고예방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, 앞으로도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” 이라고 말했다.

< 붙임 > 사진자료(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)

[붙임 1]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



열우물사거리



선학역사거리